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3월 6일, RIA NEWS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 '극동에게 있어 동방경제포럼의 중요성은 날로 성장할것'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의 극동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입증되었다고 올해 3월6일 있었던 러시아 극동개발부 활동보고 회의에서 극동개발부 장관이 밝혔다. 장관에 의하면 극동의 변화에 대해 해외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계도 이를 논하고 있다.

<https://ria.ru/economy/20180306/1515819602.html>

2018년 3월 5일, TASS

제 4회 동방경제포럼 기간 변경

2018 동방경제포럼은 2018년 9월 11-13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다. 기존 계획된 일정은 2018년 9월 6-7일이였다. 안톤 코바코프 러시아 대통령 자문관에 의하면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행사 일정 관계상 동방경제포럼 기간을 변경하게 되었다.

현재 2018동방경제포럼 공식일정 세부화가 진행중이다.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산업분야별 및 투자 활동에 집중하는 행사일정이 예상되며 2018년에는 인적자원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http://tass.ru/ekonomika/5007804>



2018년 2월 21일, Komsomolskaya Pravda

일본 아베 신조 총리, 2018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및 2018 동방경제포럼 참석 예정

모스크바에서 코바코프 러시아 대통령 자문관과 코주키 주러일본대사와의 면담이 있었다. 양측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2018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및 2018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전제로 한 러시아와 일본간 경제협력의 전망을 논의하였다.

코주키 대사는 고위급 일본 방문단이 양 포럼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TOBO (Japan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 NIS)와 일본무역진흥기구 (JERTO) 관계자들도 방문단에 포함된다.

<https://www.kp.ru/daily/26797/3832791>

2018년 2월 9일, 'OTV-Prim'

중국 정부, 사업가들의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 촉구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중 지역간 협력의 해 개막식에서 자국 사업가들이 적극적으로 2018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였다. 개막식은 하얼빈에서 러시아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중국 상무위원 왕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또한 왕양 상무위원은 러시아 기업들을 올해 상하이에 예정된 제 1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로 초청하였다.

otvprim.ru/economics/primorskij-kraj_09.02.2018

극동 국가정책

2018년 2월 22일, 'Interfax'

2018년 전자비자로 입국 가능한 극동연방관구 지역 5개 추가

2018년에 전자비자체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크네비치) 외에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엘리조보), 블라고베센스크 (이그나티예보), 하바롭스크 (노비), 유즈노사할린스크 (호무토보), 아나디리 (우골느) 공항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이 전자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극동 지역 수가 총 6개가 된다.

외국인들의 간소화된 비자 체제로 입국을 허용하는 연방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2월 5일 기준으로 극동에서 약 8000개의 전자비자가 18개국 국민들에게 발급되었으며 이 중 2000개는 올해 발급되었다. 전자비자로 연해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총 14개국 5100명 이상이다. 중국 (3300명), 일본 (1600명)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http://tourism.interfax.ru/ru/news/articles/47358/>



2018년 2월 8일, RIA NEWS

러시아와 중국간 국경지대에 15억 달러 규모 신규 선도개발구역 조성 가능

러시아와 중국은 포그라니치니 (연해주) - 쉬이펀허(중국) 간 국경초소 지역에 국경을 초월하는 신규 선도개발구역 조성을 논의중이며 투자총액은 15억 달러가량이다.

계획에 따르면 선도개발구역은 총 413 헥타르로 (러시아 영토 233헥타르, 중국 영토 180 헥타르) 구역 내 통행 및 물자, 서비스의 유통은 자유롭게 허가된다. 선도개발구역의 러시아 및 중국 입주기업들은 제약조건 없이 생산품을 양국 시장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https://ria.ru/east/20180208/1514192322.html>

극동 경제

2018년 3월 6일, 'Vesti.Economics'

지난 4년 반동안 민간투자 37억루블 유치

신규 경제 정책에 따라 1200개의 신규 투자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고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극동개발부 2017년도 활동보고 회의에서 밝혔다.

장관에 의하면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인프라 지원과 같은 신규 정책 덕분에 극동에 러시아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이다. 아무르 가스가공공장, 보스토치니 석유화학공단, 즈베즈다 조선단지, 대규모 축산단지, 아무르 주 및 유대인 자치주의 국경연결다리 등이 포함된다.

<https://www.vestifinance.ru/articles/98570>

2018년 2월 27일, TASS

블라디보스토크 신규 도시발전계획으로 230억 루블 규모의 37개 프로젝트 추진 가능

도시발전계획 변경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들의 물류 인프라 구축, 신축 아파트 단지, 스포츠 및 관광 인프라 건설, 건설자재 생산, 양식업 등 37개 투자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프로젝트들의 발표된 투자액은 총 228억 루블로 1077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http://tass.ru/v-strane/4990025>

2018년 2월 15일, RBK

노바텍, 캄차카 LNG 터미널 건설에 15억달러 투자

캄차카 LNG 환적 터미널 건설 부지는 수개월 내로 확정될 전망이다. 후보지로 베체빈스카야 만과 아바차 만이 검토되고 있다. 터미널 건설에 있어 설계시 지역 지진활동을 반드시 고려하여 지진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노바텍은 캄차카 터미널의 완공을 2023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노바텍은 러시아에 전례없는 36만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운반할수 있는 운반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https://www.rbc.ru/rbcfreenews/5a8562509a794723e13978b7>

2018년 2월 4일, TASS

일본,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토크 인프라 근대화계획 제공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교통흐름개선, 관광시설 및 철도역 인근지역 환경개선을 포함한 일본 기술을 사용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인프라 근대화 계획을 제안할 의향을 밝혔다. 해당 계획은 5월로 예정된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방러 일정에 맞추어 준비되었으며 곧 러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http://tass.ru/ekonomika/4928241>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8년 2월 1일, TASS

약 11만명의 러시아 국민들이 '극동헥타르' 취득신청 접수

10만 9400명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극동헥타르' 취득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3만 5000명 이상이 해당 정책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였다. 주로 극동 주민들이 신청을 접수하였고 취득한 토지 면적으로는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가 앞서고 있다. '극동헥타르' 정책에 따라 러시아 국민은 극동지역에 무상으로 1헥타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http://tass.ru/obshchestvo/4920468>